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엄마 나라를 알고 싶어요-열대 농장 체험' 실시



한국문화와 엄마 나라의 문화를 함께 이해.. 아열대 농장 체험을 하며 가족간 소통과 존중 배우는 기회

지난 8월 2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일산서구 '뜨렌비팜' 열대농장에서 「엄마의 나라를 알고 싶어요」라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열대작물에 대하여 알아보기, 농장 견학하기, 엄마나라 음식 요리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11가족 총 32명이 참여하였다.

체험에 참여한 가족들은 '열대에서만

볼 수 있었던 파파야, 모링가, 사탕수수, 사탕무, 바나나, 커피나무 등을 고양시 농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며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이어 요리시간에 숨땀(파파야 샐러드), 팟타이(볶음 쌀국수), 반짇노영(베트남 피자) 등 엄마의 진두지휘 아래 함께 요리하며 음식을 완성했다. 아빠들도 능숙하게 혹은 서툴지만 함께 요리에 참여하며 그 의미를 높였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결혼이민여성들은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리웠던 풍경도 보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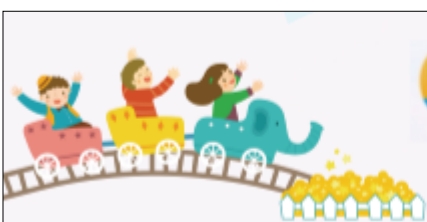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경기도고양교육청 초등교육과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박영진 장학사는 "엄마 나라 이해를 높임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의 문화와 엄마 나라의 문화를 함께 이해

하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기획되었다"고 전했다.

임유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다문화 자녀들이 아열대 농장 체험을 하면서 가족간의 소통과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경기도고양교육청에 감사함을 표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9월 프로그램 일정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